

시로 읽는 성보순례

국보 73호 금동삼존불감



금동삼존불감

임보

저 고려나 신라 적 우리 조상님네들
생각도 참 가루했다

먼 길을 떠날 일이 있으면
혼자 가지지 않고
부처님과 늘 동행하였다

그것도 한 분의 본존불만이 아닌
좌우 두 분의 보살님도 함께 모셨다

아니, 부처님들만이 아니라
한 채의 절, 대웅전을 뜰째로
품에 안고 다녔으니
얼마나 그 가슴이 넓으셨던가?

하για,
저 수미산 위의 아득한 도솔천을
품고 살았던 분네들이니
한 채의 절쯤이야 무슨 대수였겠나?

불감의 금동 지붕 위에
천년의 하늘이 푸르게 고여 있다.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중에서

임보 시인은... 1962년 〈현대문학〉으로 등단. 시집 〈장담 설법〉,
〈가시연꽃〉 등

조계종 쇄신, '청규·종무·선거 복지' 집중

4대의제

조계종이 추진하는 종단 쇄신안 마련이 승가 청규·종무·선거제도·승려복지제도 등 4가지 의제로 집중된다.

조계종 승가공동체쇄신위원회(위원장 밀운)는 9월 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쇄신 의제 및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전체 회의에는 6차 소위원회 회의부터 12차 회의까지 7회에 걸쳐 만들어진 쇄신 의제에 대한 결정이 안건에 올랐다.

소위원회에서 만들어진 쇄신의제는 승가청규 제정을 비롯해 △종단종무쇄신안 마련 △선거제도 △호법제도 △승가복지제도 △교육제도 △포교제도 등 7대 대의제와 14개 소의제로 구성됐다.

하지만, 쇄신위원들은 종단 전반의 상황을 다루기에는 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의제를 압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교육위원장 현응 스님은 "의제 방향이 너무 크다. 7대 의제를 3대 의제 정도로 압축해야 한다"며 "내년 6월에 쇄신 백서를 발

간하는 것은 위원회 취지에 안 맞다. 입법화 과정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도 "현재 작성된 의제 중 호법제도를 종단종무쇄신안에 포함시키고 정리하자"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승가청규 △종단종무쇄신안 △선거제도 △승가복지제도 등을 종단 쇄신 4대 의제로 결정했다. 쇄신

승가 쇄신위 전체 회의서 결정

연말까지 쇄신안 완성해 백서로

내년 입법과정... 쇄신작업 박차

안도 연말까지 완성해 백서로 발간하고 내년부터 입법 과정을 밟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의제 결정으로 쇄신안 전반의 윤곽이 드러났다. 청규에는 승가의 의식주와 생활·문화 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기며, 종무쇄신안으로는 중앙종무기관, 지방교구의 제도와 관행 개선, 인사제도 개선



조계종 승가공동체 쇄신위원회는 9월 3일 6차 전체회의를 열고 4대 의제를 결의했다. 덕문 스님이 의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등의 방안이 다뤄진다.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받고 있는 선거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총무원장, 중앙총회의원 선거법과 산중총회법을 수정할 계획이다. 승가복지제도에서는 의료, 연금, 최소생계비 보장 등 기본수행생활에 대한 지원 방안이 논의된다.

한편, 승가공동체 쇄신위원회는 명칭 개정, 간사 직책 추가 등을 골자로 한 '쇄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령' 개정안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승가공동체 쇄신위원회는 종단 쇄신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며 간사를 선임할 수 있게 됐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천태종, 9월 4일 새 스님 14명 배출

구인사서 수계산림법회 봉행

천태종이 새 스님 14명을 배출했다. 천태종은 9월 4일 단양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입진년 승려수계산림법회를 봉행했다.

구인사에 입산해 3년 행자 생활을 마친 계법승 3명과 계정년 11명은 이날 도용종정 스님을 증명법주로, 3원장 스님·각부장 스님·비구니 원로 스님을 3사 7중사로 모시고 불제자로서 마음을 밝혀 삼계중생의 스승이 되고 일체중생을 제도하겠다고 서원했다.

도용종정 스님은 "오늘 부처님 계를 받아 마음에 새기고 심신계를 잘 지키기 바란다. 어떤 법을 하더라도 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불할 수 없다"며 "계율이 청정해야 성불할 수 있다. 앞으로 공부하면서 진리를 얻기 위해 반드시 계를 지키고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수계식은 △삼귀의례 △보현행원 △반야심경 독경 △상원원각대조사 법어 △고불문 △국운운장기원 △수계자 명단

발표 △수계자 분향 △수계자 고태예배 △불전 예배 △연비 △수계 △장삼 및 가사 수여 △수계증 및 도침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천태종(총무원장직무대행 무일 스님)은 9월 7일 단양 구인사에서 입제식을 시작으로 11일까지 5일 간 수륙 영산대제 및 생전예수재도 봉행했다.

삼회향놀이 학술대회는 11일 인광당 4층에서 진행됐다. 학술대회에서는 김영진 청주대 명예교수(前 충북 문화재위원)가 '삼회향놀이의 문화재 지정 의의'를, 이창식 세명대 교수(충북 문화재위원)가 '구인사 삼회향놀이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또 최일성 전 청주대 명예교수와 한중구 충북 문화재위원이 논평자로 나서 삼회향놀이의 학술문화적 의의에 대해 논의했다.

5일 동안 진행된 이번 영산대제는 수륙재, 영산제, 예수재는 물론 지난 4월 충북도 무형문화재 제25호로 지정된 삼회향놀이도 시연됐다.

김주일 기자



천태종은 9월 4일 구인사에서 승려수계 산림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스님 14명이 배출됐다.

백양사 주지 직무대행 진우 스님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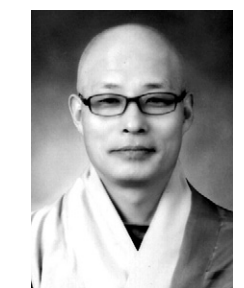
7일 검수 인계... "사중 정상화 위해 노력" 천명

백양사 前 주지 시몽 스님의 직무 정지로 인한 총무행정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한 직무대행에 답양사 주지 진우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9월 6일 총무원회의 결의를 통해 백양사 직무대행에 진우 스님(사진)을 임명했다.

진우 스님은 6일 저녁 백양사 대웅공사를 열고 도박과 불법 촬영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데 대한 100일 참회정진을 결의했다.

9월 7일로 검수 인계를 마무리했으며, 총무국장에 원명스님, 기획국장에 첨마스님, 재무국장에 정건스님 등 임시 7직 소



임자를 정했다. 이와 함께 진우 스님은 백양사 정상화에 대한 입장문도 발표했다.

진우 스님은 "일부 백양사 문도가 출가수행자로서 해선 안 될 잘못을 범해 종단과 사회에 큰 충격과 상처를 드렸다"며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백양사 주지 직무대행의 소임을 맡게 되었기에, 조속히 사찰을 정상화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신종일 기자

선원수좌회 "지체없는 쇄신 촉구"

연대회의 동참... 교직자協 성명은 명의 도용 논란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대표 무어, 지환, 이하 선원수좌회)가 총무원 집행부에서 종단 쇄신 개혁을 지체없이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선원수좌회는 9월 1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일반 중도들의 눈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종단 개혁과 쇄신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안되는 것도 아닌' 현상상태의 미봉책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선원수좌회는 현 집행부에게 지체 없는 개혁을 시행할 것으로 촉구했다. 전국승가대학 교직원협의회를 9월 3일 수좌회의 성명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이를 주도했던 해인사 승가대학장 해월 스님이 다른 교직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공표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한편 사부대중 연대회의의 수좌회 주장에 동참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신종일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1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략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쇠송, 상단에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관공, 대령관공, 신중작법, 지장정,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2년 9월 중

◆개강일시 : 2012년 9월 개강.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제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동국사 창건 제104주년 한일합동 다례제 및 참사문비 제막식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인 대한불교조계종 동국사에서 일본불교 최대종단인 조동종에서 발표한 〈참사문〉을 조동종 승려가 회장으로 있는 동지회 〈동국사를 지원하는 모임〉이 주관하여 동국사 창건 기념일에 맞춰 참회법회와 〈참사문비〉 제막식을 봉행합니다



"참사비는 폐망 후 68년 만에 일본인들 스스로 한국에 세우는 참회의 비석입니다. 참사문(참회와 용서의 글)은 불교의 중도사상을 바탕으로 지난 과오를 부처님께 참회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선언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막식을 계기로 한일 양국민 모두 서로를 용서하며 우호적 선린관계로 발전시켜 이웃사촌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일 자 : 2012년 9월 16일(일) 10시 ~ 12시
장 소 : 군산 동국사
문 의 : 063)462-5366 . HTTP://DONGGUKUSA.OR.KR
주 차 : 동국사 좌측 금광초등학교 운동장, 인근 공영 주차장 이용

대한불교조계종 동국사 주지 종명
일본 조동종 동국사를 지원하는 모임 회장 이치노헤 쇼코

전북 군산시 금광동 135-1 동국사